

2024. 4. 28.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파송: 졸업, 군입대, 휴학)

## 설교: 임동진

본문: 다니엘 3:8-12

제목: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느라 만나는 시련들

설교 25 분, 8 페이지, p10-17

**(표준새번역) 3:8 그 때에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ESV) 3:8 Therefore at that time certain Chaldeans  
came forward and maliciously accused the  
Jews.**

**3:9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3:9 They declared to King Nebuchadnezzar, "O  
king, live forever!**

**3:10 임금님,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3:10 You, O king, have made a decree, that every  
man who hears the sound of the horn, pipe,  
lyre, trigon, harp, bagpipe, and every kind of  
music, shall fall down and worship the golden  
image.**

**3:11 옆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11 And whoever does not fall down and worship  
shall be cast into a burning fiery furnace.**

**3:12 임금님께서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3:12 There are certain Jews whom you have  
appointed over the affairs of the province of  
Babylo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se men, O king, pay no attention to you;  
they do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10 절.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려서 정해진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백성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을  
경배하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3:10 임금님,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 신상 앞에 옆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3:10 You, O king, have made a decree, that every man who hears the sound of the horn,  
pipe, lyre, trigon, harp, bagpipe, and every kind of music, shall fall down and worship the  
golden image.

11 절. 만약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타는

화덕(벽돌을 굽는 가마,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 아닌)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칙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3:11 옳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11 And whoever does not fall down and worship shall be cast into a burning fiery furnace.

그런데 8 절. 어떤 점성가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표준새번역) 3:8 그 때에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ESV) 3:8 Therefore at that time certain Chaldeans came forward and maliciously accused the Jews.

12 절. 그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12 임금님께서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3:12 There are certain Jews whom you have appointed over the affairs of the province of Babylo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se men, O king, pay no attention to you; they do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 배 더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사형에 처해진 겁니다.

**✓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본래 괴로움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4:1 절, 모든 인간의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고생을 더 했다는 뜻이며, 더 많은 괴로움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표준새번역) 욥기 14:1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ESV) Job 14:1 "Man who is born of a woman is few of days and full of trouble."

인생이 본래 그런데다가, 그리스도인이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반란군의 땅, 사단이 권세 잡은 바로 그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욱 더 시련은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요 15:20 절.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날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사람들이 주인인 나를 박해했다면, 종인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박해를 기대해라. 박해받는 것이 나의 종이라는 증거다!”**

요한복음 15:2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John 15:20 Remember the word that I said to you: ‘A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If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also persecute you. If they kept my word, they will also keep yours.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면 할수록

막 10:30 절, ‘박해’를 견하여, 덤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개역개정) 마가복음 10: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ESV) Mark 10:30 who will not receive a hundredfold now in this time, houses and brothers and sisters and mothers and children and lands, with persecutions,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Certification 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믿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데 시련 없이,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잘 살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든지 그 곳이 이 세상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시련 없이 살았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환란을 받았다는 예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인홀더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 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 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Living one day at a time;  
Enjoying one moment at a time;  
Accepting hardships as the pathway to peace;**

평화와 평안으로 가려면 고통과 시련을 지나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씨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실 때 돌짜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13:20 또 돌짜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ESV) Matthew 13:20 As for what was sown on rocky ground, this is the one who hears the word and immediately receives it with joy,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21 yet he has no root in himself, but endures for a while, and when tribulation or persecution arises on account of the word, immediately he falls away.

성장하고 30 배 60 배 100 배 열매 맺는다는 말은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그 환난과 박해를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환란과 박해 없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환란, 시련, 고통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다니엘의 세친구가 겪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시련’에 대한 두번째 메시지는,

**✓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압박합니다.**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타겟으로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시련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압박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시련을 통해 세상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가지  
목소리를 전합니다. 그 첫번째 목소리는,

✧ “남들 다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해! 그래도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잖아!”**

그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수만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은 주변 수십개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고고한 척 하느냐는 압박이 컸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별나게 신앙 생활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압박을 가하는 세상의  
두번째 목소리는,

❖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셔야지!”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의 지방 행정관으로 세우셨으면, 좀 보호해  
주시고, 잘나가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장가 잘 가고, 신앙 좋은 학생이 좋은  
학교 잘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 잘하는  
집사님이 금방 이사로 진급하고, 땅을 사면 땅 값  
오르고, 비트코인 사면 대박 나고, 복권 사면 1 등  
당첨되고, 길다가 금도 줍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연구하면 금방 성과가 나오고, 대충 쓴 논문이 유력  
학술지 표지에도 실리고, 박사 3 년만에 따고,  
노벨상도 받고, ....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집안이 만사  
형통은 아니어도, 곤란한 일은 안 당하고, 억울한 일은  
좀 피해가고, 사고는 좀 덜 일어나고, 암은 우리 가족만  
피해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는 것을 다 알고, 모두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과 환란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대도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가짜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 ✓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졸업하고 휴학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생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고난과 환란과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나만(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해!”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인생의 고통과 신앙의 박해와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Certification 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교회에서 섬기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남들 다하는 데, 너도 세상을 따라 해”**

**“이정도는 괜찮아”**

**“네가 고난 받고 힘든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정도는 해주셔야지!”**

시련과 고난 중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되시거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한 주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십시오. 담 주일에 이어서 우리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도: 하나님 앞에서

**→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시련을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 주께서 졸업, 휴학(군입대, 인턴), 본교로 복귀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소서

##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4.4.28.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느라 만나는 시련들, 다니엘 3:8-12)

1. ‘인생은 고해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나인홀더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에서 아래 내용을 여러분의 말로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하루 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 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Living one day at a time;*

*Enjoying one moment at a time;*

*Accepting hardships as the pathway to peace;*

3. “남들 다해, 이 정도는 괜찮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